

2014 05 12

알라모아나Alamoana의 오후

아침 11시에 기상해서 이모가 만들어놓은 김치볶음으로 아점을 먹었다. 어제 구워놓은 삼겹살까지 들어가서 베이컨김치볶음 같았다. 김치와 고기의 비율이 1:1이라 더욱 좋았다. 아침을 먹고, 설거지를 하고 잠자리를 정리한 뒤, 모닝소설을 보는데 이모부가 나왔다. 이모부도 점심을 드시고 회사에 나가실 준비를 했다. 이모부가 준비를 마치고 나갈라던 찰나에 택배가 왔다. 주문한 스피커와 FM 변환기가 왔는데, 건전지를 넣고 켜보니 소리도 좋고 잘 작동했다. 이모부가 12시반쯤 나가신 뒤, 나도 나갈 준비를 했다. 담요와 음료수, 스피커를 챙기고, 어제 산 선글라스를 챙겨서 집을 나왔다. 키가 없는게 마음에 걸리기는 했지만, 아가들이 수영가기 전에 들어오면 된다는 생각에 그냥 나왔다. 밖은 어제의 비가 거짓말처럼 맑은 하늘이 나를 반기고 있었다. 자전거를 타고 NordStromRack에 먼저 들러 아빠 선글라스 교환할 것을 찾아봤다. 어제 아빠 선글라스를 사고나서 발견했는데, 오른쪽 테가 조금 빠지는 문제가 있었다. 그래서 오늘 매장에 들러 교환하려고 했다. 근데 어제 산 것과 똑같은 켈빈클라인 선글라스들은 모두다 테가 그 모양이었다. 켈빈클라인 브랜드가 짠 이유가 있었다. 그래도 쓰는데는 아무 지장이 없으니, 그냥 사가려고 한다. 매장에서 나와 kamakee길을 따라 알라모아나 공원으로 들어갔다. 날씨가 좋아서인지 백사장에 사람들이 가득하다. 결혼사진을 찍는 사람들도 여럿이 있었다. 바다와 사람들을 구경하며 천천히 자전거를 타고 매직아일랜드로 향했다. 자전거를 타고 산책길을 달리니 좋은 날씨에 내 기분도 더불어 흥이 난다. 매직아일랜드에 도착해서도 바닷가를 따라 천천히 산책을 하다가 매직아일랜드를 한바퀴 돌았다. 잔디를 여러번 가로질러 다녔더니 은근히 힘이 든다. 적당히 그늘이 있는 나무 밑에 자리를 잡고 담요를 깔고 누웠다. 가지고 온 스피커로 노래도 듣고, 핸드폰에 넣어온 닥터이방인도 보면서 시간을 보냈다. 햇빛이 있어 더운 날씨였는데, 바람도 많이 부는 날씨인지라, 그늘에 누워있으니 너무 시원했다. 바람에 날리는 나무들도 한폭의 그림 같았다. 그렇게 시간을 보내다보니 어느새 3시 40분이었고, 시간상 아가들 수영시간가는 시간안에 집에 못도착할 것 같아 아가들한테 전화를 했다. 그랬더니 둘다 집이 아니고, 집에는 이모가 있다고 한다. 그래서 여유롭게 알라모아나를 다시 한바퀴 구경하고, 푸나후쪽으로 집에 왔다. 경사가 있는지라 은근히 운동이 된다. 집에 도착하니 이모가 청소기를 돌리고 계셨다. 자전거를 정리하고, 이모가 세탁기에 넣어둔 빨래들을 건조기에 집어 넣은 뒤, 샤워를 했다. 샤워를 한 뒤, 빨래를 널고 쇼파에 누우니 몸이 노곤노곤하다. 자전거 타고 잔디를 오고가는게 생각보다 은근히 힘들었나보다. 배도 많이 고파서, 아침에 이모가 먹으라고 해놓고 간 스파게티를 그제서야 흡입했다. 저녁시간이 가깝긴 했지만, 이거먹고 또 먹지라는 생각으로 먹었다. 근데 은근히 배부르다. 그래서 이모가 저녁으로 먹으려고 삶아놓은 스파게티면과, 마늘바게트빵을 조금 더 먹어 아예 저녁으로 삼았다. 이모가 예쁘게 마늘빵과 카나페등을 만들어두었었는데, 오늘 저녁에 제시가 이모를 초대했다고 한다. 6시가 좀 넘어서 제시카이모와 세은이가 왔다. 인사를 드리고 쇼파에 누워있기 위해서, 방에 들어가 누워있었다. 누워서 스피커로 노래를 듣고 있으니 잠이 솔솔온다. 조금 자다가 일어났다. 목이 말라 음료수를 꺼내와 마시는데, 밖에서 인기척이 들려 보니 세은이가 밖에서 창문으로 보며 장난을 친다. 할 것도 없어서 아가랑 놀아주려고 몸을 움직였다. 뒤뜰도 구경시켜주고, 마당에 나가 사랑이도 보여줬다. 사랑이가 기분이 좋지는 않은지 만지는걸 허락하지는 않았지만 치즈를 주면서 아가한테 고양이를 구경시켜줬다. 이모랑 제시카이모가 뭔가 심각한 대화들을 나누길래 세은이를 데리고 자리를 피해줬다. 방에서 아가랑 놀아주고 있는데 7

시반쯤 현성이가 왔다. 현빈이가 올때쯤 제시카이모도 자리를 정리하고 갈 준비를 했다. 현성이는 그제서야 씻고 밥을 먹고, 현빈이는 배가 아프다고 (피자를 4조각이나 먹었다고 한다.) 저녁을 안먹는댄다. 남은 바게트빵을 먹는데, 설거지가 눈에 띄길래 우렁각시처럼 설거지를 해놓고, 빵을 더 먹었다. 이모가 디저트로 쿠니아 수박을 잘라줬다. 여름에는 역시 수박인가보다. 달달하고 시원하게 너무 맛있었다. 그렇게 맛있는 것들을 먹고, 소설을 보고 게임을 하며 저녁시간을 보냈다. 9시쯤 이모부가 회사에서 늦게 퇴근해 저녁을 드셨다. 9시 반쯤 오늘 일찍 일어난 현빈이 (어제 늦게까지 하다가 다 못한 숙제를 하라고 이모가 6시에 깨웠다고 한다.)는 조금 일찍 자러 들어갔다. 근데 오늘은 현성이가 숙제를 한다고 늦게까지 안잔다. 10시 40분쯤 현성이도 자러 들어가고, 나는 소설을 보다가 Tv를 봤다. 그리고 이제 일기를 쓰고 오늘은 일찍 잠자리에 들려고 한다. 아까 잠깐 잔게 몸이 개운해지기는 했는데, 다시 졸리다. 내일은 민재 헬로키티가방을 찾으러 다녀봐야겠다.

인간회.기억아카이브

Human & Memory Archives